

##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를 보인 비특이적 신생검 소견 2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이영기 · 김성균 · 서장원 · 오국환 · 윤종우 · 구자룡 · 김형직 · 유종우\* · 남은숙\* · 노정우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는 사구체나 세뇨관 질환, 아밀로이드증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 검사와 요검사 등을 시행한 후에도 원인이 불확실할 경우 신생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생검 결과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치료 방법이나 예후는 분명치 않다. 저자들은 신증후군 범위의 지속적 단백뇨를 보이는 환자에서 신조직 검사 결과 비특이적 소견을 보인 2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19세 남자로 학교 검진 결과 단백뇨와 혈뇨가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요검사상서 요단백 (4+), RBC 30-39/HPF였다. 생화학 검사상 BUN/Cr 13.1/1.1 mg/dL, protein/albumin 8.1/5.5 g/dL, cholesterol 198 mg/dL이었고, 24시간 요단백은 4.0 g이었으며 요전기영동검사 결과 선택적 단백뇨로 나타났다. 면역혈청검사 결과 IgA 315 mg/dL이었고, HBs Ag, HCV Ab, ASO, VDRL, HIV Ab, ANA, ANCA, cryoglobulin 등은 모두 음성이었다. 신생검 검사 **결과** : 10% 미만의 foot process effacement 이외에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구 스테로이드(prednisolone 1 mg/kg/day)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경구 cyclophosphamide의 병합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하루 4g 이상의 단백뇨가 지속되었다. 치료후 반복한 신조직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현재 투약을 중지하고 경과 관찰 중인 상태이다.

**증례 2** : 22세 남자로 1년 전부터 시작된 피로감과 부종으로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요검사상서 요단백 (4+), RBC 50개 이상/HPF였다. 생화학 검사상 BUN/Cr 13.7/1.2 mg/dL, protein/albumin 6.9/4.6 g/dL, cholesterol 166 mg/dL이었고, 24시간 요단백은 3.4 g이었으며 요전기영동검사 결과 선택적 단백뇨로 나타났다. 면역혈청검사 결과 IgA 274 mg/dL이었고, HBs Ag, HCV Ab, ASO, VDRL, HIV Ab, ANA, ANCA, cryoglobulin 등은 모두 음성이었다. 신생검 검사 **결과** : 20% 미만의 foot process effacement와 thin basement membrane (222-227 nm) 소견으로 ACE inhibitor를 투여하였다. 치료 시작 후 단백뇨 소견은 지속되었으나, 1년 6개월 후인 현재 하루 단백뇨량은 1g 정도로 감소된 상태이다.